

2016년 1월 소식

샬롬 ~ 샬롬 !

주 안에서 평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시리라" (약4:10)

올 한 해동안 제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담고 새기고자 정한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 이라는 제목으로 탕가신학교 개강 설교도 했습니다.

첫째, 칭찬의 소리를 책망 소리로 들어라.

둘째, 존경 받을때 과분하다고 생각하라.

셋째 , 인정 받을때 아직도 부족 하다고 생각하라.

오래전 약 36년전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때 교수님께서 조언 하신 말씀을 떠올려 설교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더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1월도 끝자락에 와 있구요.

새해 첫 달을 마무리 하면서 사역지에 있었던 일들 함께 나눕니다.

{ 탕가 신학교 }

개강 소식;

1월 9일 개강을 했습니다. 올 해의 신입생들은 모두 17명이 입학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찌나 더운지 내륙 산간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꽤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년중 가장 더운 시기인데 모두 건강하게 학업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수여;

지난 해 세번째 학기때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 중에서 각 학년마다 3명씩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 했습니다.

학기 초마다 수여하는 장학금은 지금으로 부터 약 10년전에 어느 방문자께서 시작하신 \$1,000 의 seed money 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seed money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계속된 동기부여 차원에서 박선교사 개인 생활비에서 지속적으로 그 장학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현재 학비로 계산해서 \$1,000.이면 약 2년의 장학금을 수여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60명의 신학 생들 중에서 집이 먼 27명(1년 약 \$2,000.)의 학생들의 학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여행경비가 학비보다 약 3배가 많아서 학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까운 거리의 학생들이 잘 이해 해주는 동료애로 인하여 문

제없이 그 사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을 계기로 신학교를 위한 뜻 있는 여러 종류의 장학 사역에 동참 하실 분들이나 단체 그리고 교회들의 소식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현재 신학교 봉사를 위한 full time staff는 학장인 Rev.George Nywage 목사님을 포함 6명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리빙 스톤 중학교 소식 }

신입생 소식;

올 해는 정원 80명 중에서 75명이 입학 했습니다. 현재 리빙 스톤 학생 수는 약 300명 입니다.

2015년 2학년 국가고시 성적 발표;

총 83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약 80% 이상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나머지 학생들도 약간의 점수차이로 1등급에 오르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클레스 운영방식;

올 해 부터 클레스 운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교사가 교실을 찾아가는 기존의 방식에서 학생들이 학과목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교사는 본인 학과 준비와 교실 관리를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학생들 역시 더 활기 있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소식;

과학관 바닥 타일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마무리 페인트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개월 동안 이곳에 오신 고태일 집사님의 수고로 과학관 내부의 각종 실험실 실험대가 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책장과 학생들 락커 장 역시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고태일 집사님은 앞으로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돕기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사 5명이 머물게 될 one room house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약 1개월 후 부터는 5명의 교사들이 각자의 숙소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페스티벌 행사;

2월 11일 부터 13일 까지 리빙 스톤 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Muheza 시내 공설 운동장에서 첫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간, 둘째 날 학교 운동회, 셋째 날 학부모 초대의 날 행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웃 돕기;

약 1개월에 한번 정도 10여명의 학생들과 2명의 교사들이 이웃 병원 혹은 동리를 다니면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병원을 방문 할 때는 청소도구와 청소에 필요한 비누와 약품등을 구입하여 손수 청소까지 해주고 이웃 동리를 방문 할 때도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 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학교 주위에 있는 Teule라는 병원을 찾아가서 한국에서 가져온 휠체어 3대를 전달 하는등 봉사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 일은 영훈 선교사와 현지 교사 1명의 인솔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웃에게 복이 되자" 라는 리빙 스톤 중학교의 아름다운 교훈이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학생들 한국 견학 방문 계획;

2014년 6월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살려 올 해에는 3월 말 부터 약 2주간의 계획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 15~17명의 학생들이 계획 하고 있는데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이 길어져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월 초경 이면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의 준비 일과 저렴한 비행기표 구입을 위해서 기도 부탁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각종 공사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 리빙 스톤과 탕가 신학교 1학년들의 적응을 위해서.
3. 2월 중순에 갖게 될 리빙 스톤 학교 페스티벌 행사를 위해서.
4. 한국 견학 방문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 합니다.

2016년 2월 28일

박윤석 선교사 가정 드림.